‘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조명하다

신라정신연구원 학술세미나
김방룡 충남대 교수 등 참여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신라정신연구원은 4월 17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넉넉하고 유순한 ‘들판정신’ 김제 만경문화 원류(源流) 찾기 ‘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제 만경 출신의 대표적 선지식인 진표율사, 진묵대사, 탄허 대종사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신라정신연구원은 4월 17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넉넉하고 유순한 ‘들판정신’ 김제 만경문화 원류(源流) 찾기 ‘진표 · 진묵 · 탄허 정신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전일환 前 전주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미륵정신과 진표, 진묵’,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의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金堤와 김홍규 父子’,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의 ‘금산사의 진표 율사와 깨달음의 길’이 발표됐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는 현실을 만들었고 현실은 또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과거를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미래를 여는 지혜가 된다”며 “오늘 진표, 진묵, 탄허 스님의 정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고 세계인이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방룡 교수는 “김제 · 만경 지역에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미륵신앙에서 찾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지역민의 관심 부족. 둘째 정치적으로 표심과 연결되지 못함. 셋째 증산교와 관련성이 깊어 금산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표 스님이 〈송고승전〉에 수록됐다는 점, 김제 만경현에 속했던 고군산도가 중국과의 중요한 해상로 거점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고군산도와 진표와의 관련성을 부각시켜 진표 · 진묵과 관련된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성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산사가 익산의 미륵사지, 증산교의 미륵불사상, 원불교 및 신흥종교의 미륵사상을 포용한 미륵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장은 “탄허 스님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간방사상(艮方思想)을 설파한 것은 보천교의 영향이다. 특히, 김제는 정읍과 함께 전국 유일의 민중종교, 민족종교의 성지라는 종교사상적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일 이사장은 “길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길, 방도를 나타내는 길,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로 분류하는데, 전체를 걸어야 전체를 얻는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들의 큰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 걸어보자”고 역설했다.

김동수 이사장은 “선사들의 고매한 정신세계야말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라정신의 원형이요. 더 나아가서는 배달민족으로서의 한국적 정신의 원류이다. 선현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지속되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역사문화의 정통성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김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문화도시 김제의 위상이 만방에 펼쳐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사)전라정신연구원은 2019년 6월 16일 설립된 이후 ‘전라도의 혼이 깃든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연구 · 조사해 민족정신이 투철한 민주문화시민의 상 건립’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전라정신 연원을 탐구하는 학술 기관지 〈전라정신 4집〉을 발간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에 연규 스님 취임

“종지종풍 진작 사회선도 마중물
지역 원융화합 불교위상 높일 것”



여수불교사암연합회 신임 회장에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이 취임했다.

사단법인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17일 여수 히든베이호텔 대연회장에서 신임 회장 연규 스님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회장 연규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종지종풍을 진작시켜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수 지역 대중의 원융화합과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지역 불교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위화감을 소멸시키고, 불자와 여수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종교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오랜 기간 지역 불교를 이끌었던 흥국사 前 주지이자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이 입적해 연규 스님을 후임 회장으로 임명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이날 신임 위재춘 신도회장을 위촉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한편 연규 스님은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선본사 갓바위 부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부산 해동용궁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엄사 총무국장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여수 향일암 주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각국사 탄신 845주년 다례재 봉행



화순을 대표하는 선지식인 진각국사 혜심 스님 탄신 845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 및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4월 18일 전남 화순문화원 들국화 강당에서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의 뜻을 추모하고,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나눔 잔치를 봉행했다.

대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불교는 예로부터 국난을 당하거나 위기에는 항상 중생 곁에서 호국애민의 살신정신을 구현해 왔다”며 “혜심 스님은 고려 중기 무신권력 속에서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한 화순의 큰어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본말사 합동수계산림법회 봉행

“화엄행자답게 참 불자 되길…”
용천사 등 말사 2000여 명 참석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4월 15일 경내 각황전과 대웅전 앞마당 금강계단에서 ‘화엄사 본 · 말사 합동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를 비롯해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이 전계아사리,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로 참여하고, 7증사에 종일, 명섭, 종지, 종걸, 종과, 명완, 종삼 스님 등이 계단에 올라 수계산림법회를 증명했다. 또한 유나 종곡 스님과 진표 스님이 인례로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보살계를 비롯해 불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을 내렸다.

본행사인 수계법회는 인례자의 거향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장궤합장한 가운데 예경삼보, 명청성법, 정청사법, 개도계법, 사불괴신, 참회과법, 연비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인례사의 참회진언을 시작으로 화엄사 경내에 참가자들의 진언 합송이 가득한 가운데 연비가 진행됐다.

주지 덕문 스님은 “오늘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금부터는 오늘 참여한 수계불자들이 화엄행자가 되었다. 앞으로 화엄행자답게 몸과 마음, 행이 일치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 바란다”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부산 용천사, 의왕 용화사, 인천 영웅사, 사자암, 부산 해동용궁사, 보현사, 정광중고, 금선사, 자성사, 흥국사, 용문사, 보광사, 팔공선원, 도솔암, 향일암, 도림사, 관음사, 정혜사, 빛고을포교원, 천은사, 사성암, 서산사, 태안사, 흥륜사, 동화사, 한산사, 은적사, 백운사, 천태암 등 전국 각지의 화엄사 말사 대중 2000여 명이 각황전과 대웅전 마당을 가득 채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재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재탄생

불교계 최초, 전국 2번째 개원
입원형 25병상, 가정형 허가 득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이사장 능행)이 4월 14일 개원식을 열고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자재병원은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양병원 시범사업 1차 모집을 통해 호스피스 10병상을 허가받아 7년간 호스피스환자들의 의료적인 케어뿐 아니라 영적 돌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2022년 11월 ‘자재병원’으로 명칭을 변경, 같은 해 12월 28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입원형 16병상과 가정형을 지정 허가받았고 현재는 입원형 25병상과 가정형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 대감사 회주 설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이나 대만의 자제정사 증엄 스님 같이 대단히 뿌듯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수행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건 없는 이해와 용서와 친절 그리고 서로 나눔과 이에 봉사하는 것, 본래 우리가 함께 명상으로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명상요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정토마을 자재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정토마을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로 가능했다”며 “자재 병원이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돕고 그분들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신뢰를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상임이사 정오 스님(기장 고불사), 이사 보혜 스님이 승가 요양 요사체 미타원건립 후원금 1000만 원을 능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 무료급식 봉사



군산 성흥사와 성흥사 신도회,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4월 17일 구 군산역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김승수 신도회장을 비롯한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원들은 경로식당을 찾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홀몸어르신 30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흰쌀밥과 미역국, 도토리 묵 무침, 콩나물 무침, 김치로 구성된 식사를 대접한 성흥사 나누우리 봉사단원들은 배식 봉사와 설거지, 주변 정리까지 마무리했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포교의 한 방편”이라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 정법사, 생전예수재 회향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4월 17일 2층 만불보전에서 생전예수재 특별정진기도회를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정법사 사부대중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광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고 연구를 하면서 감응하는 것은 감성의 영역이고, 지성과 감성의 영역이 합쳐져야 영성이 열리고 영성은 곧 불성”이라며 “영성과 불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 신앙은 전부 헛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 3박자를 갖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운흥사, 호국영령 · 국태민안 영산대재

임진왜란 때 지역 승병조직 본거지
300년 동안 이어져 코로나로 중단



고성 운흥사는 4월 17일 ‘제293회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과 의병들의 영혼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살아 숨 쉬는 우리 지역의 문화가 여법하고 숭고한 의미로써 범국민적 문화행사로 이어져 왔다”며 “한줄기 빛으로 가신 그들의 국난극복을 위한 업적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여 원수도 아픔도 없는 생명의 근본자리에서 꽃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00년 동안 봉행해 온 영산대재가 코로나19로 중단될 위기를 맞았지만 멈추지 않았던 것은 국난극복을 위해 희생하신 승병, 관군, 수군들의 영혼과 호국영령의 넋을 천도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호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멈출 수는 없다는 주지스님 이하 사부대중의 원력”이라고 치하하고 “옳은 일과 의로움, 즉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신 사명대사와 6000여 명의 스님들의 위법망구 신심을 기리는 운흥사 영산대재는 지난 300년을 이어 앞으로도 세세생생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이 지역 승병의 본거지였으며 사명대사의 지휘 아래 6000여 명의 승군이 운흥사에 머무르면서 왜군과 전투를 벌인 호국성지도량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명대사와 수륙양면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 번이나 방문했다. 임란 때 병화로 소실된 것을 효종 2년(1651년)에 중창했으며, 임란 후에는 불교의 화원 양성소로서, 조선불화가 3인 중 하나인 의겸을 배출한 불교회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봉축위, 연등축제 계획 발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전라북도 연등축제가 불교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봉행된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 진성)와 불교문호보존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계획을 밝혔다.

전북봉축위는 올해 연등축제의 주제를 ‘꿈 타는 연등회’로 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를 통해 역사적 ·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신이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참여하는 생동감 있는 축제, 단순 종교행사가 아닌 전통 문화콘텐츠를 잘 살린 시민의 문화축제,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5월 13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서는 오전 10시부터 연등 · 지화(紙花) 만들기, 금산사 미륵전 공포 조립체험, 다도&명상체험, 수수팥경단 만들기 등 13개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또 그동안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렸던 전북 어린이 큰 잔치를 연등축제 행사장으로 옮겨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도민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봉축법요식은 식전행사로 전북연합합창단의 합창제가 열리고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가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법요식 이후에는 연등을 들고 전라감영을 출발해 영화의 거리, 오거리 광장, 팔달로를 거쳐 다시 전라 감영으로 돌아오는 2.2km의 구간에서 제등행렬이 펼쳐진다.

제등행렬에는 전주 한지로 제작된 30여 개의 대형 장엄등과 각자 만든 특색 있는 연등이 전주 거리를 수놓게 된다. 이어 배아연, 박현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은 흥겨운 축제의 대미를 작성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봉산 용주사, 생전예수재 봉행



경남 하동 월봉산 용주사(주지 지묵)는 4월 1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수산자비선원 법상 스님, 포항 여래사 정규 스님 등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이 날 예수재는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고사단 헌전, 행첩소 봉송, 상단불공, 법문, 중단헌공, 함합소, 운마거십필등중, 시식, 봉송 회향의 순으로 전통적인 장엄과 의례로 재의 의미를 더했다.

묘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앙이라기보다 수행에 가까워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을 지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